

국내 마취과의사의 간행윤리 의식 분석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아산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마취통증의학교실

황 재 현 · 남 순 호*

A Questionnaire Survey of Domestic Anesthesiologists on the Ethics of Publishing

Jai Hyun Hwang, M.D., and Soon Ho Nam, M.D.*

Department of Anesthesiology and Pain Medicine, Asan Medical Center, University of Ulsan College of Medicine;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Background: The importance of publication ethics has recently been emphasized. Therefore, inquiries regarding dual publications were analyzed to obtain basic data on whether domestic anesthesiologists recognized its importance and understood its practicalities.

Methods: The data for the questionnaire was collected from doctors who participated in a review workshop with full consent. A total of 15 questions were classified into 3 categories: a general interest regarding the ethics of publication, personal objective opinions and reactivity toward an illegal act in this regard.

Results: Thirty-eight participants responded spontaneously to the questionnaire. Thirty-six participants were aware of the principle of dual publications and 35 participants were aware of the contents in the home page. Twenty participants had contact with lectures or other media related to redundant publishing. Fourteen participants answered 'yes' regarding their colleague in an illegal action. However, 25 participants said that they were prepared to report an illegal act to the department or society. Only 5 participants tried to take into consideration ethical issues of dual publication while 15 participants were tempted regarding dual publication while writing a paper. Twenty-seven participants agreed with the principle of duplicate or illegal publication. Thirty participants were prepared to have a consistent attitude toward any individual that committed a violation against publication ethics. Nineteen participants worried about the possibility of exposure of an illegal publication.

Conclusions: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a watch system, dual publication can easily be detected. Regular education regarding publication ethics and notification to members to prevent an illegal act is necessary. (Korean J Anesthesiol 2008; 54: 557~62)

Key Words: dual publication, ethics, questionnaire.

서 론

비약적인 의학발전과 더불어 매년 새로운 연구결과가 수 많은 의학관련 학술지에 발표되고 있으며 동시에 의료윤리에 관한 중요성도 점차 강조되고 있다. 간행윤리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나날이 증가하는 연구 논문의 윤리적인 면이 강조되고 있으며 실제로 문제시 된 사례가 국제학술

지에 종종 보고되기도 한다. 최근 국내에서도 연구논문의 해외학술잡지로의 투고가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나 반면 이에 따른 간행윤리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은 상대적으로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제는 간행윤리의 문제가 단지 개인만의 단순한 문제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이중게재 또는 중복출간이란 2개 이상의 원고가 철저한 참고문헌의 출처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똑 같은 가설, 자료, 고찰의 요점 혹은 결론을 공유하는 경우를 말하는데,¹⁾ 저명한 국제 마취과학술지에서도 90년대 초 간행윤리에 대한 내용이 사설에 실린 바 있고²⁾ 이제는 이중게재에 대한 주제로 발표된 논문도 인터넷상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3,4)}

따라서 이 연구는 국내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들의 간행윤리에 대한 관심과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정도를 알아보고,

논문접수일 : 2007년 12월 28일

책임저자 : 황재현,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388-1

울산대학교 서울아산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우편번호: 138-736

Tel: 02-3010-3859, Fax: 02-470-1363

E-mail: jhhwang@amc.seoul.kr

Table 1. Contents of Questionnaire about Ethics in Publishing

Q 1.	대한마취과학회지에 중복출간/이중게재에 대한 내용이 실려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Q 2.	대한마취과학회 홈페이지에 의학 논문의 이중게재/중복출간에 대한 대한마취과학회의 처리원칙에 대한 공지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Q 3.	의학 논문의 이중게재/중복출간에 대한 강의를 들어 보거나 다른 매체를 통하여 접한 후 그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Q 4.	주위에서 동료가 논문을 이중게재/중복출간 한 경우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Q 5.	현재 근무하는 대학병원에서(타과에서라도) 이중게재가 문제가 된 사례가 있습니까?
Q 6.	만일 주위의 동료가 출간윤리에 어긋난 행위를 한다면 혹은 하였다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Q 7.	논문심사 의뢰를 맡으신 경우 중복게재에 대한 사항을 염두에 두고 이에 대한 확인도 하십니까?
Q 8.	논문심사 시 저자의 중복게재 사실을 확인한다면 간행위원회에 보고하겠습니까?
Q 9.	중복게재 사례가 밝혀지는 경우 학회차원에서 예외 없이 원칙대로 철저히 시행하려 한다면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Q 10.	중복게재의 문제가 본인의 문제든 다른 사람의 문제든 자신은 일관된 태도를 보일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Q 11.	논문제출 시 이중게재/중복출간에 대한 윤리적 문제에 대하여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Q 12.	논문작성 시(SCI논문 포함) 이중게재/중복출간에 대한 유혹을 느낀 경험이 있습니까?
Q 13.	만일 중복출간에 대한 감시가 더 강화된다면 주위 동료 중 누군가는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Q 14.	아직도 국내의 여건이 외국의 경우와는 다르므로 국제적인 기준만큼의 윤리지침을 적용하는 데에는(특히 처벌에 대한 경우)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Q 15.	이번 강의가 윤리문제의 심각성을 다시금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취과 영역의 현 시점에서 간행윤리의 적용 정도를 이해 하는데 기초자료를 얻고자 하여 논문심사위원들을 대상으로 이중게재에 대한 설문조사결과를 분석하여 보았다.

료는 암호화하여 보관하였고 자료의 통계분석은 Microsoft Excel 2002 SP3를 사용하였다.

대상 및 방법

모든 자료는 2007년 제11차 대한마취과학회지 논문 심사 위원 워크숍에 참가한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들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 설문조사는 현재 국내의 논문투고 정서상 예민한 문제이고 동시에 사전에 구체적인 설명을 하였을 경우 결과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판단하여 마취과학회 편집위원회의의 사전동의를 구하였고 설문대상자에게는 간행윤리에 대한 의식조사를 한다는 설명만 한 상태에서 시행하였다. 그리고 논문 심사 위원들을 설문 대상으로 한 이유는 심사위원들이 국내학술지에 논문투고도 많이 하고 특히 해외 학술지에 투고하는 주된 대상이기 때문이다.

총 15문항의 질문을 하였는데 크게 관련성이 있는 세 분야 즉, 간행윤리에 대한 일반적인 관심도, 구체적 사안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의견, 그리고 부정행위에 대한 반응도에 대해 5문항씩으로 구성하였다(Table 1). 설문 형태는 가급적 솔직한 의견을 얻고자 무기명으로 하였으며 국내에서 구체적으로 표면화된 사례가 없고 해외사례에 대한 관심도 없는 분이 대부분이라고 가정하여 12문항은 가급적 단순한 예/아니오 식의 형태로 하였고 3문항은 정도에 따라 세 가지 답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여 세 분야의 질문을 적당히 섞어 배열한 형태로 구성하였다. 수집된 모든 자

결 과

총 참석자 57명 중 38명이 자발적으로 설문에 응답을 하였다. 국내 마취과영역에서 처음 시행하고 매우 민감한 사항이라 가급적 솔직한 답을 얻고자 하여 나이, 성별, 소속, 직급 등을 기입하지 않은 설문결과이며 응답결과는 아래와 같다(Table 2).

대한마취과학회지에 이중게재/중복출간에 대한 내용이 실려있다는 사실을 아는지에 대하여 36명이 알고 있다고 하였고, 마취과학회 홈페이지에 투고논문의 이중게재/중복출간에 대한 학회의 처리 원칙을 안다고 답한 경우가 35명이었다. 그리고 이중게재에 대한 강의를 들어보거나 혹은 기타 다른 매체를 통하여 접한 후 그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본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선 20명만이 있다고 답하였다. 주위에서 동료가 논문을 이중게재 한 것을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의외로 14명이 그렇다라고 답하였다. 하지만 이렇게 부정행위를 접한 경우 어떻게 대처하겠느냐는 질문에는 10명은 모른 체 한다, 18명은 과내 상급자에게 보고한다, 7명은 학회에 보고한다고 응답하였고 기타 3명은 무응답이었다.

현재 근무하는 병원에서 타과에서라도 이중게재가 문제가 된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한 응답에서 3명이 그렇다고 하였다. 논문제출 시 이중게재에 대한 윤리적 문제에 대하여 고려해 본 적이 있는가에 대하여는 5명이 그렇다고 하

Table 2. Response to Each Question in Questionnaire Regarding Ethics in Publishing

Q1.	Yes, I knew (36)	No, I did not (2)	
Q2.	Yes, I knew (35)	No, I did not (3)	
Q3.	Yes, I had (20)	No, I had not (18)	
Q4.	Yes, I had (14)	No, I had not (24)	
Q5.	Yes, I had (3)	No, I had not (35)	
Q6.	Leave (10)	Report to a senior staff (18)	Report to the KSA (7)
Q7.	Yes, I did (10)	No, I did not (27)	
Q8.	Report by definition (32)	Depends on the situation (6)	Leave (0)
Q9.	Agree to the principle (27)	Agree passively (11)	Objection (0)
Q10.	Yes, I did (30)	No, I did not (8)	
Q11.	Yes, I had (5)	No, I had not (33)	
Q12.	Yes, I had (15)	No, I had not (23)	
Q13.	Yes, I did (19)	No, I did not (19)	
Q14.	Yes, I did (16)	No, I did not (22)	
Q15.	Yes, I did (38)	No, I did not (0)	

KSA: Korean Society of Anesthesiologists, (): number of respondent.

였고, 해외 논문을 포함하여 논문 작성 시 이중게재에 대한 유혹을 느껴 본 적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15명이 있었다고 답하였다. 논문심사 시 이중게재에 관한 사항을 염두에 두고 심사하는지에 대하여는 10명만이 그렇다고 하였으며 이때 저자의 이중게재가 확인되면 학회 편집위원회에 보고할 것이냐는 질문에 32명이 당연히 보고한다고 하였고 6명은 개인적으로 알아보고 상황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답하였다.

중복게재 적발 시 학회에서 원칙대로 처리하는 것에 대한 의견에는 전원이 찬성하였으나 27명은 원칙적으로 찬성한 반면 11명은 부작용을 우려하여 소극적 찬성에 답하였다. 이중게재와 같은 간행윤리 위반에 대한 처벌 시 타인뿐 아니라 자신의 문제인 경우에도 일관된 태도를 보일 것인가에 대하여 30명이 그렇다고 하였다. 이중게재에 대한 감시가 더욱 강화된다면 주위 동료 중 간행 부정행위로 적발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과반수인 19명이 그렇다고 답하였고, 국제적 수준으로 엄격한 윤리지침과 처벌을 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는 16명이 그렇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간행윤리에 관한 강의를 듣고 심각성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 전원이 그렇다고 답하였다.

고 찰

간행윤리는 합리적인 계획과 윤리적인 절차를 거친 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결과를 학술지에 출간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사항이며, 연구과정에서 결과를 조작하는 등 잘못된

결과를 출간하는 행위뿐 아니라 같은 내용의 연구결과를 여러 형태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연구인 것처럼 발표하는 행위 모두를 포함한다.⁵⁾ 학술지에서도 중복(redundant) 혹은 이중(duplicate) 게재를 “이미 출판된 논문과 상당 부분 중첩된 논문을 편집인이나 독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서로 다른 잡지에 출판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으며,⁶⁾ 이러한 학술지의 중복출간은 의학윤리의 위반과 의학정보의 교란이란 중대한 문제를 초래한다. 이는 의학 지식의 축적에는 도움을 주지 못하며 단지 저자 이력서의 양을 늘릴 뿐이고 오히려 지식의 혼란을 초래하기도 하는데, 한 예로 Tramer 등은⁷⁾ ondansetron에 대한 메타분석에서 환자자료를 28%에서 중복으로 사용하였고 이로 인해 치료효과가 23% 더 좋은 것으로 과장되는 문제가 생긴다고 하였다.

간행윤리에서 흔히 언급되는 이중게재는 2개 이상의 원고가 철저한 참고문헌의 출처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똑같은 가설, 자료, 고찰의 요점 혹은 결론을 공유하는 경우를 말하는데,¹⁾ 이러한 부정행위는 일반적으로 저자의 고의에 의한 것이며 대부분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전문가로서 임용, 승진, 업적에 따른 차등 보수, 동료로부터의 평가 등 다양한 개인적 필요에 의해 이중게재의 유혹을 받게 된다고 한다.

국내 학술지의 경우 한때는 저명한 국제학술지로의 투고를 권장하는 차원에서 이중게재를 어느 정도 묵인하여 왔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한 검색과 접근이 용이해지면서 각 학술지마다 이중게재에 대한 판정 기준이 점차 엄격해 지고 있다. 이전에 어디에도 원고를 제

출하거나 출간한 적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는 말 그대로 “어떠한 언어로도, 어디에서도, 일부 혹은 전부, 인쇄 혹은 전자 매체, 학술지의 Index Medicus 등재여부, 저작권에 대한 동의서에 저자의 서명 여부 등을 막론하고 출간된 적이 없어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1,6,8-10)}

설문 응답자 대부분이 대한마취과학회지와 대한마취과학회 홈페이지에서 의학 논문의 이중게재에 대한 공지사항과 처리원칙에 대한 내용을 보았다고 하였고, 과반수 이상이 의학 논문의 이중게재에 대한 강의를 들어 보거나 다른 매체를 통하여 그 내용을 자세히 읽어본 적이 있다고 하여 현 시점에서 최소한 과반수 이상에서는 이중게재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신경 쓰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학술지, 인터넷 등의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간행윤리에 대한 내용을 접한다는 결과는 그만큼 논문투고도 많이 하며 그에 따라 관심도도 증가하였지만 반면 부정행위에 대한 유혹도 적지 않을 것이라 짐작된다. 이는 SCI논문을 포함하여 논문작성 시 이중게재에 대한 유혹을 경험하였다고 15명이 응답한 사실과도 어느 정도 일치됨을 보여준다. 하지만 논문제출 시 이중게재에 대한 윤리적 문제에 대하여 5명만이 생각해 보았다고 하여 아직까지도 논문투고 시 대체로 이중게재의 심각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거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잘 모르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중게재가 단순히 똑같은 논문이 동시에 다른 학술지에 게재되는 경우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여기에는 한 논문을 동시에 두 학술지에 투고하는 행위, 실험결과를 조작하거나 부풀리거나 혹은 결과의 일부를 다른 실험결과에 끼워 넣는 행위 등이 모두 포함됨을 알아야 하며, 특히 multicenter study와 같은 임상실험의 경우 각기 다른 나라 혹은 다른 분야의 저자가 각각 다른 학술지에 투고하거나 심지어 개별적으로 투고하면서 저자를 바꾸어 제출하는 경우까지 모두 이중게재라는 부정행위에 해당함을 알아야 한다.^{1,6,11,12)}

현재 근무하는 병원에서 타과를 포함하여 이중게재가 문제가 된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3명이 있었다고 응답하였고, 주위에서 동료가 논문을 이중게재 한 경우를 보았는가 하는 질문에 14명이 그렇다고 응답하여 국내에서도 적지 않은 경우에서 이중게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결과보다는 더 많은 부정행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는 양심고백을 하지 않는 한 정확한 수치를 알기 힘들고 상당수에서는 본인이 하는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참고로 이중게재에 대한 주제로 발표된 외국문헌의 경우를 살펴보면 원저 6편 중 1편의 비율로 다양한 형태의 이중게재가 있었다고 하였고,³⁾ 세부학회지 특히 지역적인 세부학회지 경우는 그 정도가 더욱 심하였던 것으로

보고되었다.⁴⁾

주위의 동료가 간행윤리에 어긋난 행위를 하는 경우 18명은 과내 상급자에게 7명은 마취과학회에 보고하겠다고 하였으며 10명은 모른 채 하겠다고 응답하여 일단 25명이 부정행위 사실을 알리려고 하지만 적극적으로 학회에 보고하겠다는 응답자는 많지 않았고 국내 학계의 정서상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경우는 더 적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과내 상급자에게 보고한다거나 모른 채 한다는 18명의 응답은 일단은 알리는 형태는 취하지만 후속적인 부작용을 우려하거나 적당한 일이지만 그런 일에 본인이 직접 연관되어 곤란해지는 것은 피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대다수임을 추측할 수 있었다.

한편 논문심사 시 이중게재에 대한 사항을 염두에 두고 심사하는지에 대해서는 10명이 그렇다고 하였고, 투고한 저자의 이중게재에 대한 사실을 확인한다면 편집위원회에 보고하겠다고 하는 응답에 32명이 그렇다고 하여 예상보다는 제대로 심사를 하고자 노력하는 교수들이 많다고 생각하였으며 이는 매우 긍정적인 변화였다. 하지만 이러한 후자의 응답 즉 같은 교실에서의 동료들을 대상으로 한 부정행위에 대하여 학회에 고발하겠다는 정도(7명)와 다른 교실의 회원을 대상으로 한 정도(32명)는 큰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아직까지도 우리의 윤리적 잣대가 이중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옳지 않은 일에 대하여 동감하지만 한편으로는 갈등하면서 이러한 민감한 문제를 자신이 용기를 가지고 나서기 보다는 학회나 타인이 떠맡아 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반면, 이중게재의 문제가 본인의 문제든 타인의 문제든 간에 자신은 일관된 태도를 보일 수 있는지에 대하여 30명이 그렇다고 대답하여 대다수가 간행윤리에 관한 바른 인식과 마음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였지만, 상기 차이점에서 보듯 부정행위에 대한 학회로의 보고에 대한 응답결과와 연관시켜 보면 과연 용기 있고 솔직하게 일관된 태도를 보일지에 대하여서는 의문스럽다.

이중게재 사례가 밝혀지는 경우 학회차원에서 예외 없이 원칙대로 철저히 처리하려 한다면 27명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따를 것이라 하였고 11명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나 부작용이 우려되어 소극적 자세를 취할 것 같다고 하여 상당수가 원칙을 지키자는 명분에서는 동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실제로 원칙적인 처벌이 시행되더라도 공개적으로 반대하지 못한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처벌에 관한 경우 국내에서 국제적 기준만큼의 윤리 지침을 적용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는가에 대하여 22명이 아니라고 답한 사실도 같은 맥락에서 판단되었다.

편집인은 저자를 보호할 의무와 함께 이중게재와 같은 부정행위를 감시하여야 할 의무도 있으며 부정행위가 파악

이 된 경우에는 이미 출간된 논문은 물론 심사과정에 있는 원고에 대하여도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즉, 원고심사 시 단순한 게재거부로 역할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정행위의 추적에 대한 도의적 의무도 있는 것이다. 이는 학술지의 질적 향상, 대다수의 선량한 저자 보호, 구독자의 학술지에 대한 신뢰감 등 학회의 발전에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일 것이다. 어떤 식으로든 학문적 부정직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편집인은 그 문제를 다루는 공식기관에 회부하고 나아가 부정직성이 증명되면 논문출판을 철회하고 의료정보망에 통보하여 해당논문을 삭제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한다. 외국의 경우 부정행위 사례가 발견되면 철저히 분석하고 자의든 타의든 관련된 모든 저자와 공저자에게 해명을 요구하며 그 결과 부정행위로 판정되면 정도에 따라 교실과 학회에 통보하고 출간된 학술지에 공고하거나 발표논문을 삭제하며 아울러 근무하는 학교와 병원에서는 원칙대로 처벌하며 향후 예방차원에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9,10,13,14} 연구 부정행위는 오래 전부터 존재해 왔는데, 이에 관하여 미국 샌디에고 대학에서 얼마나 철저히 대처하였는지를 보고한 예도 있고,¹³ 국제학술지 논문 투고 시 문화적 차이와 나라마다 규정상 차이점 등 그럴만한 분명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여러 단계에서 출판에 관여된 여러 사람들이 왜 오해 받고 어떻게 해명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도 일부 학술지에 나와있다.^{9,10} 이러한 사례들이 국내와는 달리 외국학술지에 투고를 하는 경우 더욱 주의할 해야 하는 이유임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따라서 이중게재와 같은 간행윤리상의 부정행위가 일부 회원들의 무관심과 이해부족으로 또는 개인적인 욕심으로 인하여 발생한다면 개인적인 불이익과 불명예 일뿐 아니라 성실하게 연구하는 동료회원들 그리고 마취과학회까지도 곤경에 빠뜨리게 할 수도 있는데 국내의 “황우석 교수 사건”이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아울러 심사위원도 이중게재에 대한 관심과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저자들은 간행윤리의식과 자신의 투고논문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독자들에게 의심되는 논문에 대한 신고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본다.

만일 중복출간에 대한 감시가 더 강화된다면 주위 동료 중 누군가는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과반수가 그렇다고 답하여 한편으로는 불미스러운 일의 발생에 대한 우려와 함께 아마도 본인들도 그러한 유혹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였다. 마지막 막으로 간행윤리에 대한 강의가 윤리문제의 심각성을 다시금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 전원이 그렇다고 답하여 학회차원에서는 예방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홍보와 간행윤리에 대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는데, 연구대상에 따라 차이는 있었지만 의료윤리에 대한 교육이 도덕성 증진효과

와 긍정적인 태도로의 현저한 변화를 보였다는 보고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¹⁵⁻¹⁸

이중게재는 논문을 많이 쓰고 접하며 한편으로 자주 논문을 심사하는 대학에 근무하는 전문직에 의하여 주로 행하여지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은 논문심사위원으로 하였다. 그리고 가급적 솔직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설문대상자의 소속, 직위, 나이 등은 설문지에서 제외시켰는데 이로 인해 좀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분석하기에 부족한 면이 있었다.

이중게재에 대한 유혹은 이중게재에 대한 감시가 소홀하거나, 이중게재가 발견되었을 시 사후 조치가 미흡할 경우 더욱 강해질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인터넷을 통한 논문 검색이 용이하고 국내외의 문헌 검색기관의 기능이 활성화됨에 따라 원고 심의과정에서 심사자에게 발견되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이는 감시체계가 강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국내 학술지 편집인은 이러한 사안에 대면하게 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하여 일차적으로 이러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과 경각심 유발을 위한 주기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아울러 이러한 문제가 발견이 되었을 시 편집인은 어떠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인가를 사전에 준비하고 이를 독자에게 단호히 고지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1. 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 (COPE). Guidelines on good publication practice. *J Urol* 2000; 163: 249-52.
2. Smith G, Miller R, Saidman LJ, Morgan M: Ethics in publishing. *Br J Anaesth* 1991; 66: 421-2.
3. Schein M, Paladugu R: Redundant surgical publications: tip of the iceberg? *Surgery* 2001; 129: 655-61.
4. Bailey BJ: Duplicate publication in the field of otolaryngology-head and neck surgery. *Otolaryngol Head Neck Surg* 2002; 126: 211-6.
5. Hanke CW: Dual publication and manipulation of the editorial process. *Dermatologica* 1991; 182: 250-1.
6. 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Uniform requirements for manuscripts submitted to biomedical journals. *Ann Intern Med* 1997; 126: 36-47.
7. Tramer MR, Reynolds DJ, Moore RA, McQuay HJ: Impact of covert duplicate publication on meta-analysis: a case study. *BMJ* 1997; 315: 635-40.
8. Rogers LF: In any language. *AJR Am J Roentgenol* 2000; 174: 1487.
9. Rogers LF: Duplicate publication or not? Case 1. *AJR Am J Roentgenol* 2000; 174: 1789-90.
10. Rogers LF: Duplicate publication or not? Case 2. *AJR Am J Roentgenol* 2000; 174: 1790-1.
11. Rennie D, Flanagan A: Authorship! Authorship! Guests, ghosts, grafters, and the two-sided coin. *JAMA* 1994; 271: 469-71.
12. Huston P, Moher D: Redundancy, disaggregation, and the integrity

- of medical research. *Lancet* 1996; 347: 1024-6.
13. Marshall E: San Diego's tough stand on research fraud. *Science* 1986; 234: 534-5.
 14. Relman AS: Lessons from the Darsee affair. *N Engl J Med* 1983; 308: 1415-7.
 15. Moffic HS, Coverdale J, Bayer T: Ethics education for psychiatry. *J Clin Ethics* 1991; 2: 161-6.
 16. Self DJ, Baldwin DC Jr, Olivarez M: Teaching medical ethics to first-year students by using film discussion to develop their moral reasoning. *Acad Med* 1993; 68: 383-5.
 17. Sulmasy DP, Geller G, Levine DM, Faden RR: A randomized trial of ethics education for medical house officers. *J Med Ethics* 1993; 19: 157-63.
 18. White BD, Zaner RM: Clinical ethics training for staff physicians: designing and evaluating a model program. *J Clin Ethics* 1993; 4: 229-35.
-